김병수 저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출간

아름다움·편리함 경계 넘어

삶의 조건을 다시 그리다

/아이클릭아트

9개국 300여명 인터뷰로 담아낸 '배제 없는 세상'의 해법

디자인은 더 아름답고 편리한 것을 만드는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박물관에 가지 못하고, 노인이 배달앱 화면 앞에서 주문을 포기해야 한다면 '편리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배제가 된다.

김병수 저자의 신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휴머니스트刊)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삼성전자 디자이너 출신이자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전공한 저자는 5년에 걸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인도 등 9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장애인·노인·어린이·난민·ADHD·난독증·공황장애 등 다양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과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박물관·도서관·놀이터·앱·국립공원 등 일상 속 공간과 서비스를 탐구하며 '배제하지 않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 '기준점'에서는 설계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기준'을 확장하고 바꾸는 사고 전환을 다룬다. 2장 '숨겨진'은 난독증이나 공황장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접근성을 탐구하며, 3장 '참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참여형 디자인의 중요성을 짚는다. 4장 '공통점'에서는 치매 어르신이나 고령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사례를 통해 다름 속 공통의 지점을 찾으며 마지막 5장 '선택권과 자유의지'는 포용적 설계의 궁극적 목표를 '존엄'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소외된 사용자의 경험을 연구하며 'MSV 소셜임팩트 시리즈'를 진행해왔다.

그는 "기준점을 확장하고, 사용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완벽보다 점진적 실행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접근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이다.

책 속에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가 담겨 있다.

발달장애 아동이 '잘 버텨낸 하루'가 아니라 '최상의 하루'를 보내도록 설계된 미국 글레이저어린이박물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인지저하증 노인이 시설의 '수용자'가 아닌 '주민'으로 살아가는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전쟁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난처를 꾸민 우크라이나의 사례 등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감정에 닿아 있는 일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배리어 프리 가이드의 수치를 맹신하지 않는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완벽한 해답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바꾸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한 번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이 수정·보완되는 '포용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더 이상 '특수한 대상'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몸과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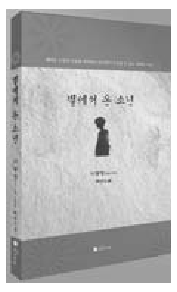
꽃으로 남은 소년, 글로 피워낸 슬픔의 기록

이향영 작가, 자전적 소설 '별에서 온 소년' 출간

기증작가로 알려진 이향영 작가가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팩트소설 '별에서 온 소년(작가마을刊)'을 펴냈다. 이번 작품은 작가의 실제 삶을 객관적으로 풀어낸 소설로, 읽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눈물을 전한다.

'별에서 온 소년'은 과거 국내 언론사 논픽션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새롭게 개작한 소설이다. 청도 출신인 작가는 미국에서 세익스피어문학과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43년간 이민자로 살아오다 지난 2018년 영구 귀국했다. 현재는 화가이자 소설가, 시인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저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태석 신부를 위한 시집 '환한빛 사랑해 당신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별들이 소풍 와서 꽃으로 피어 있네', 암 환우들을 위한 '암이 내게 준 행복' 등 여러 시집을 발간해 전액 기부해온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소설은 작가가 겪은 깊은 상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함께 지내던 하나뿐인 아들이 열일곱 살의 나이에 서울대 언어연수 중 기숙사에서 감전사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작가는 그 아픔을 오랜 시간 글쓰기와 그림, 공부로 버텨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의 길을 걸어왔다.

소설은 아들의 유해를 이장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형제, 지인, 그리고 아들의 생전 모습들을 교차시켜 보여주며 '견딤'의 시간을 그려낸다. 감정을 절제하며 담담하게 서술하지만, 곳곳에 터져 나오는 슬픔의 결이 독자의 마음을 깊이 흔든다.

이향영 작가는 "소년은 다시 피지 못할 꽃이 됐지만, 나의 애도는 부활을 꿈꾸는 소망의 꽃이 됐다"며 "그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나만의 몫이고 믿음이었다"고 밝혔다.

정유지 문학평론가는 이 책에 대해 "작가가 걸어온 삶의 흔적, 곧 고통을 넘어선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다"며 "슬픔을 통해 글을 쓰고, 글을 통해 나누며, 그 나눔을 다시 사랑으로 환원시키는 이 시대의 드문 존재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와 미학은 문학적 감동을 넘어 실천적 감화로 이어진다"고 평했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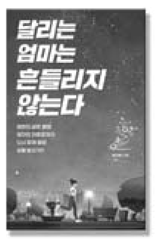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드들강, 저 황홀한 내통=임해원 저자

이 시집은 드들강이라는 이름을 불러내는 일에서 출발하지만, 그 강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존재와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확장된다. 강은 '들키는' 존재로 나타나 인간의 인식을 교란하며, 새의 죽음을 품어 순환의 생태를 노래하고, 계절과 기억의 유한성 속에서 회귀의 질서를 드러낸다. 강나루 문학평론가는 "이 책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환이며, 상실은 끝이 아니라 회귀의 조건이다"며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세계는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고 평했다. /시와사람·1만2천원

▲세종의 처방전=문무학 저자

시인은 "나랏말씀에 이 나라 저 나라 말이 섞이고, 지나치게 줄여 쓰며, 듣기 거북하게 거칠어져서 서로 잘 통하지 않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글 초성·중성·종성·예순여덟 소리를 글감으로 해 시조를 지었다. 이를 통해 바르고 고운 한글 쓰기를 자랑스럽게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인은 이처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의 약해진 지반은 개선해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기운으로 채우고 다져오고 있다. /책만드는집·1만2천원



▲달리는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다=임자영 저자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교사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맘이다. 그녀는 손목터널증후군, 약한 발목, 만성 두통 등을 평생 달고 사는 전형적인 약골 체력이었다. 쌓여있는 설거지와 빨래, 수면 부족은 물론이고 소파와 한 몸이 되려는 자신의 약골 체력을 탓하면서 SNS 속 대단한 엄마들을 부러워만 했던 그녀는 우연히 달리기를 접하며 인생이 바뀌게 됐다. 1분씩 다섯 번의 5분 달리기를 시작으로 그녀는 '살기 위해' 달리기를 지속했고, 그렇게 평생 앓아온 지병까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달리기의 힘을 믿게 된다. /빈티지하우스·1만7천800원

▲둘이 함께라면=김성은 글·그림

길에서 우연히 먹어 본 '바삭바삭 구름 과자'의 맛을 잊지 못한 비둘기 둘기와 구루룩. 둘 다 길치이고,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둘이 함께라면 원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고 길을 떠난다. 길을 잃어도, 더위에 시달려도 서로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외치는 두 비둘기들의 여행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둘이 함께라면'은 길치 비둘기의 뜻밖의 모험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헤쳐 나가면 작은 행복의 순간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그림책이다. /키다리·1만6천8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